

#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채 명 정\* · 김 진 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늦게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지원체계 및 법적인 정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 임금, 가정 및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가에서 건강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에 따라 건강상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Jeong & Shim, 2014; Kim & Kim, 2015).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한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국가의 다양한 건강증진 정책에 의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병·의원 이용률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편견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m & Jeong, 2013).

우리나라의 다문화 대상자는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들 고유의 문화적 요구 및 신념체계를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서비스에 있어서도 단일민족인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 다양한 요구를 지니고 있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Kang & Hong, 2014). 이처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전 다문화 간호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간호 역량이란 대상자의 생활 방식, 가치, 신념 및 관습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Leininger, 2007). Banks (2008)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제도화된 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Lim, 2009). 이에 국내 간호대학에서도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다문화 간호 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 Lim, 2014; Yoo & Lee, 2014).

다문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특히 강조되고 있는 역량은 다문화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neoreva@hanmail.net)

• Received: 15 September 2015 • Revised: 11 January 2016 • Accepted: 19 April 201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Jin-il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n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Tel: 82-64-754-3880 Fax: 82-64-702-2686 E-mail: neoreva@hanmail.net

효능감으로 제시되고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에 대처하고 적절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와 신념인 다문화 효능감 증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 Lim, 201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o, 2013; Peek & Park, 2013). 따라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으로 다문화 효능감이 증진된다면 졸업 후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을 단순 지식전달식 교육만으로는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선행연구(Long, 2012)와 단순 수업만으로는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보고(Choi & Woo, 2012)를 토대로 다문화 대상자를 직접 접해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문화 효능감은 타 문화의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Bae & Park, 2013)는 다문화 효능감 증진 교육이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상호작용 참여, 문화간 차이존중,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 및 상호 작용에 대한 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en & Starosta, 2000).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다문화 감수성은 대상자와 자신의 가치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민감해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Goicoechea-Balbona, 1997). 또한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Chen & Starosta, 2000), 다문화 효능감의 전제조건으로 보고되고 있다(Jin, Song, & Park, 2014).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문화적 갈등에 대처하고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효능감 증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효능감 증진은 다른 문화권에서 유입된 대상자와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인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Goo, 2013),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다문화효능감 향상 효과를 규명한 연구(Mo, 2009),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Song, Lea, & Shin, 2009)가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다문화 역량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Peek & Park, 2013)가 있었으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후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3주기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연구 가설

- 가설 1.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 대조군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다문화 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3주간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실험군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13주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교과의 교육을 적용한 군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의 G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으며, 이전에 다문화 교육의 노출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한 대상자를 실험군에 배정하였고 대조군은 다른 선택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다문화 교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가 전후설계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실험의 확산을 막고 호손효과를 최소화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효과크기와 검정력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Park & Kweon, 2013)에 제시된 효과크기와 검정력을 고려하였다. t-test에서 효과크기(d) 0.80, 검정력(1-β) 0.90, 유의수준(α) .05, 양측 검정으로 추정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군별 34명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탈락율(3%)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 군에 35명을 배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중간에 응답을 하지 않은 실험군 1명을 제외하여 최종 6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은 대상자와 자신의 가치나 건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민감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Goicoechea-Balbona, 1997). 본 연구에서는 Chen과 Statosta (2000)가 개발한 다문화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를 Kim (2008)가 번안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도구로 다문화 참여(7문항),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6문항), 다문화 소통에 대한 자신감(5문항), 다문화 소통의 향유(3문항), 다문화에 대한 주의 깊은 소통(3문항)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 4=동의하는 편이다, 5=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Chen과 Statosta (2000)의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1이었다.

#### 2)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화적 갈등에 대처하고 적절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Kim & Lim, 2014). 본 연구에서는 Guyton과 Wesche (2005)가 개발한 다문화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MES)를 Lim (200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부 영역은 일반기능 측면 4문항, 수업기능 측면 4문항, 인간관계 증진 측면 3문항, 다문화 가정 배려 측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을 측정하는 Kim과 Lim (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이 없는 수업기능 측면 4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이용하였다. 다문화 효능감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im (2014)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4이었다.

#### 4.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 1)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 형태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Lee, Park, Kim과 Cho (2010)가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개발한 교육모듈 중 '다문화 사회의 배경과 현황', '다문화 개념의 이해',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가능성' 및 '다문화 개념 이해 실습' 모듈을 참고하였고, Banks (2008)의 다문화 교육 차원 중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및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가 통합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내용 통합을 위하여 다문화 지식이 간호학 교육과정과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두 번째로 지식 구성 과정을 위해 다문화 사회의 배경, 다문화 개념을 제시한 후 다문화 대상자 간호와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매 주차별 교육 후 자기성찰을 통해 다문화 개념 및 감수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편견 감소를 위해 다른 문화권의 관점으로 건강 및 간호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직접 다문화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다문화 간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본 연구팀이 5차례 토의를 하여 구성하였고, 구성된 프로그램은 간호학 교수 3명 및 7년 경력의 다문화 현장 전문가 1명의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2)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개발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교과목 형태로 매주 2시간씩 총 13주간 연구대상자에게 실시되었다. 교육은 2015년 3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각 주차별 내용에 맞게 1주부터 5주까지와 7주부터 13주에는 강의를 진행하였고, 매 주차별 교육 후 자기성찰을 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토의하도록 하였다. 주차별 강의내용은 연구대상자의 학

년 및 이수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나라별, 생애주기 및 대상자별 의사소통 및 건강문제 사정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6주차에는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 및 건강 관련 문제를 사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간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작성을 과제로 제시하여 교육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 3) 자료수집

사전조사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2015년 3월 2일~6일)에 실시하였으며,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대조군: 2015년 6월 5일~9일)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중 맹검(double blind manner)을 위해 연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교 1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G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심의번호: 1041485-201503-HR-003-01)를 받았다. 연구 대상은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알렸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된다는 것과 참여도중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였다.

사후 조사가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으며, 대조군 연구대상자에게 실험군에게 실시하였던 다문화 교육 자료를 연구 종료 후 제공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추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Table 1. An Outlin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Weeks	Dimens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opics	Contents	Teaching methods		
1		Theoretical foundation of multicultural nur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storical origins of multicultural nursing</li> <li>• Needs for multicultural nursing</li> <li>• Analysing the prevailing nursing paradigms and the nursing theories from multicultural perspectives</li> <li>•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nursing</li> <li>• Issue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and ethical/moral care</li> </ul>			
2	Knowledge construction	Influence of cultural and health belief system on health care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ural belief systems from diverse cultures</li> <li>• Influence of culture on symptoms and illness behaviors</li> <li>• Comparing professional healthcare and folk remedies from diverse cultures</li> </ul>	Lecture		
3		Policies for multicultural clients	Basic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4			Lifetime measur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y			
5		Multicultur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with multicultural clients			
6		Prejudice reduction	Field site visit & field practic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siting migrant worker's clinic center</li> <li>• Assessing the migrant worker's health related problems</li> <li>•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bout the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client's culture</li> </ul>	Practice
7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adult health nursing			
8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maternal health nursing			
9	Culturally competent nursing care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children's health nursing		
10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family and community health nursing		
11			Content integration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mental health nursing	
12				Cultural diversity in the healthcare provi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versity of healthcare providers' cultures</li> <li>• Cultural values in the multicultural workplace</li> <li>• Strategies for promoting effective communication and preventing conflict</li> </ul>	
13	Multicultural nursing for client by living gro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sessment of needs for clients from diverse cultures</li> <li>• Strategies for promoting appropriate multicultural nursing by various living grounds</li> </ul>		

검정은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및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의 교육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 < .05$ 에서 채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동질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종교), 다문화 관련 특

성(외국인 친구 여부 및 수, 해외방문 또는 체류 경험 및 기간, 외국어 구사 능력,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또한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의 점수는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 2.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1) 가설 1: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

Table 2. The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and Multicultural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9)

Variables	Categories	Exp* (n=34)	Con* (n=35)	t of X <sup>2</sup>	p
		Mean±SD or n (%)	Mean±SD or n (%)		
Age (year)		19.53±0.56	19.94±1.11	-1.94	.056
Religion	Yes	12 (35.3)	10 (28.6)	0.36	.549
	No	22 (64.7)	25 (71.4)		
Having foreign friends <sup>‡</sup>	Yes	3 (8.8)	4 (11.4)	0.00	1.000
	No	31 (91.2)	31 (88.6)		
Number of foreign friends		1.88±0.33	1.80±0.41	0.93	.358
Experience of staying abroad <sup>‡</sup>	Yes	4 (11.8)	7 (20.0)	0.37	.513
	No	30 (88.2)	28 (80.0)		
Duration of staying abroad (days)		182.50±258.09	156.75±174.72	0.16	.874
Proficiency of foreign language(s)	Short conversations	24 (70.6)	21 (60.0)	0.85	.356
	Speaking about the word	10 (29.4)	14 (40.0)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up>‡</sup>	Yes	32 (94.1)	30 (85.7)	0.57	.428
	No	2 (5.9)	5 (14.3)		

\* Exp=Experimental Group, † Con=Control Group

<sup>‡</s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Research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N=69)

Variable	Exp* (n=34)	Con† (n=35)	t	p
	Mean±SD	Mean±SD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action engagement	3.42±0.43	3.36±0.49	0.60	.554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3.79±0.46	3.89±0.40	-0.93	.357
Interaction confidence	2.98±0.56	2.89±0.52	0.74	.461
Interaction enjoyment	3.74±0.48	3.79±0.44	-0.50	.618
Interactive attentiveness	2.96±0.39	2.75±0.54	1.83	.073
Total	3.41±0.28	3.37±0.30	0.48	.633
Multicultural efficacy				
General functions	3.86±0.53	3.81±0.34	0.43	.670
Improving social relations	3.99±0.49	3.92±0.47	0.57	.562
Considering multicultural families	3.63±0.55	3.74±0.65	-0.80	.427
Total	3.83±0.41	3.83±0.41	-0.01	.995

\* Exp=Experimental Group, † Con=Control Group

은 대조군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값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3.25, p=.003$ )가 있었다.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 $t=2.51, p=.017$ ) 및 '다문화 소통의 향유' ( $t=2.11, p=.043$ )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 참여' ( $t=0.97, p=.340$ ), '다문화 소통에 대한 자신감' ( $t=0.65, p=.518$ ) 및 '다문화에 대한 주의 깊은 소통' ( $t=0.54, p=.59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4).

2) 가설 2: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다문화 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Table 4. Comparison of Research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N=69)

Variable		Exp <sup>†</sup> (n=34)	Con <sup>†</sup> (n=35)	t	p
		Mean±SD	Mean±SD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action engagement	Pretest	3.42±0.43	3.36±0.49	0.97	.340
	Posttest	3.49±0.40	3.31±0.33		
	Posttest-Pretest	0.06±0.39	-0.05±0.40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Pretest	3.79±0.46	3.89±0.40	2.51	.017
	Posttest	3.94±0.45	3.73±0.53		
	Posttest-Pretest	0.14±0.51	-0.16±0.45		
Interaction confidence	Pretest	2.98±0.56	2.89±0.52	0.65	.518
	Posttest	3.14±0.45	2.94±0.44		
	Posttest-Pretest	0.15±0.51	0.05±0.46		
Interaction enjoyment	Pretest	3.74±0.48	3.79±0.44	2.11	.043
	Posttest	4.02±0.56	3.80±0.54		
	Posttest-Pretest	0.28±0.60	0.01±0.42		
Interactive attentiveness	Pretest	2.96±0.39	2.75±0.54	0.54	.591
	Posttest	3.03±0.49	2.78±0.45		
	Posttest-Pretest	0.07±0.46	0.03±0.64		
Total	Pretest	3.41±0.28	3.37±0.30	3.25	.003
	Posttest	3.54±0.31	3.33±0.27		
	Posttest-Pretest	0.13±0.21	-0.04±0.25		
Multicultural efficacy					
General functions	Pretest	3.86±0.53	3.81±0.34	2.64	.013
	Posttest	4.01±0.44	3.74±0.43		
	Posttest-Pretest	0.15±0.34	-0.07±0.38		
Improving social relations	Pretest	3.99±0.49	3.92±0.47	-0.39	.701
	Posttest	4.09±0.66	4.07±0.40		
	Posttest-Pretest	0.10±0.63	0.14±0.54		
Considering multicultural families	Pretest	3.63±0.55	3.74±0.65	2.65	.012
	Posttest	3.92±0.52	3.67±0.39		
	Posttest-Pretest	0.29±0.66	-0.08±0.59		
Total	Pretest	3.83±0.41	3.83±0.41	2.49	.018
	Posttest	4.01±0.44	3.83±0.29		
	Posttest-Pretest	0.18±0.37	0.00±0.36		

<sup>†</sup> Exp=Experimental Group, <sup>†</sup> Con=Control Group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전·후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49, p=.018$ )가 있었다. 또한 하부항목인 '일반기능 측면' ( $t=2.64, p=.013$ ) 및 '다문화 가족 배려 측면' ( $t=2.65, p=.01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간관계 증진 측면' ( $t=-0.39, p=.7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4).

#### IV. 논 의

최근 급격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 대상자의 문화적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과 더불어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실시 전 다문화 효능감 점수를 측정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8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Peak & Park, 2013)에서 조사한 사전 값(3.55~3.75점/5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 점수는 실험군 3.41점, 대조군 3.3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과목 수강이 다문화 감수성 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Yoo & Lee, 2014)에서 보고한 사전 값(3.46~3.51점/5점)과 유사한 점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다문화 효능감과 감수성 점수는 중앙값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일 뿐이며, 다문화 효능감의 경우 고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을 조사한 연구(Lim, 2009)에서 보고된 점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는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Goo, 2013; Peek & Park, 2013; Yoo & Lee, 2014) 교육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 증진을 위해 13주기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

과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향상된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보고(Park, Lee, & Kim, 2011)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므로(Lee, 2010) 본 연구에서도 13주기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모듈(Lee et al., 2010) 중 일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감수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감수성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및 '다문화 소통의 향유' 항목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화권 대상자를 존중하고 의사소통 하는 것은 대상자의 가치, 신념, 관습 및 특별한 건강관련 요구의 파악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Leininger,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 두 가지 항목의 점수가 향상된 결과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Banks (2008)의 다문화 교육 차원 중 '지식 구성' 및 '내용 통합'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관점으로 다문화 대상자를 사정하고 그 문화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감수성의 세부항목 중 '다문화 참여', '다문화 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다문화에 대한 주의 깊은 소통' 항목과 같은 다문화 참여 및 긴밀한 소통과 관련된 측면은 교육 전·후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참여나 긴밀한 소통은 국가, 조직 및 개인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문화적 거리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zkwitalska & Gdańska, 2010).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거리감의 정도는 교육보다는 민족정체성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Yoon & Kim, 2010) 본 연구에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가 미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적 거리감은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의 비형식적인 접촉 및 다른 문화권 방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보고(Jung & Park,

2014)를 토대로 본 교육 프로그램의 1회의 다문화 대상자 방문은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부족하였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의 접촉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군의 다문화 효능감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 효능감이 증가된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1회기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Peek & Park, 2013)와 유사한 결과였다.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Greene, Barden, Richardson, & Hall, 2014)에 따르면 자기성찰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매 주 차마다 학습 후 자기성찰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효능감이 증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효능감의 하위 영역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육 전·후로 대상자 및 대상자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인 '일반 기능 측면'과 '다문화 가정 배려 측면'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던 반면,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 협력,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효능감인 '인간관계 증진 측면'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감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규명한 선행연구(Jin et al., 2014)를 토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시킨 결과 다문화 효능감도 영향을 받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 감수성 하위 영역 중 참여와 긴밀한 소통과 관련된 측면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간관계 증진측면'의 영향이 미미하였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대상자는 유아보육학과 재학생으로 교육과정의 차이점 및 현장에서 접하는 대상자의 차이 등이 있으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와 소통 시 상대방의 언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와의 접촉 경험이 중요하다(Peek & Park, 2013). 또한 다른 문화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Bae & Park, 2013)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준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보고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다문화 대상자와의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의 접촉 횟수나 시간을 늘림으로써 다문화 참여 및 다문화에 대한 주의 깊은 소통 등의 증진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13주기의 교과 형태로 제공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졸업 후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를 만나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하위영역 중 일부 영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문화 대상자 방문 횟수를 증가시킨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으로 간호사의 다문화 역량 함양의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규명한 본 연구는 향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인지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수행되었다.

13주기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적용 받는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간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의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 증진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영역 중 '다문화 참여', '다문화 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다문화에 대한 주의 깊은 소통'과 다문화 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인간관계 증진 측면'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 증진을 위한 본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영역 중 '다문화 참여', '다문화 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다문화에 대한 주의 깊은 소통'과 다문화 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인간관계 증진 측면'의 개선을 위해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경험을 증가시켜 적용해보는 추가·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Bae, M. J. & Park, S. J. (2013). Impact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professionalism awareness on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among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8, 139-164.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Choi, H. J. & Woo, M. J. (2012). A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 and efficacy.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6(5), 315-338.
- Goicoechea-Balbona, A. M. (1997). Culturally specific health care model for ensuring health care use by rural, ethnically diverse families affected by HIV/AIDS. *Health & Social Work*, 22(3), 172-80. <http://dx.doi.org/10.1093/hsw/22.3.172>
- Goo, H. S. (2013).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5, 83-112. <http://dx.doi.org/10.15300/jcw.2013.06.45.83>
- Greene, J. H., Barden, S. M., Richardson, E. D., & Hall, K. G. (2014). The influence of film and experiential pedagogy on multicultural counseling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14(5), 63-78. <http://dx.doi.org/10.14434/josotlv14i5.12656>
-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s*, 7(4), 21-29. [http://dx.doi.org/10.1207/s15327892mcp0704\\_4](http://dx.doi.org/10.1207/s15327892mcp0704_4)
- Jeong, J. Y. & Shim, M. S. (2014). Immigrant women's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200-210. <http://dx.doi.org/10.5932/JKPHN.2014.28.2.200>
- Jin, J. S., Song, S. M., & Park, S. J.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ttitudes between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2(3), 169-186.
- Jung, M. H. & Park, O. B.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 on university students of Cheungbuk.

-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7(2), 81-105. <http://dx.doi.org/10.14328/MES.2014.06.30.81>
- Kang, Y. S. & Hong, E. Y. (2014). A study on health education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as perceived by visiting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445-459. <http://dx.doi.org/10.5932/JKPHN.2014.28.3.445>
- Kim, N. H. & Lim, S. Y. (2014).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7(4), 169-184. <http://dx.doi.org/10.14328/MES.2014.12.31.169>
- Kim, O. S. (2008). Comparison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between preservice teachers in south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8(1), 193-217.
- Kim, E. S. & Kim, D. H. (2015).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erceived health status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344-353.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2.344>
- Lee, J. K., Park, E. J., Kim, H. J., & Cho, Y. J. (2010). *A study on the education modules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Lee, J. Y. (2010). *Effects of formal education and informal experience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Leininger, M. (2007). Theoretical questions and concerns: response from the theory of culture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perspective. *Nursing Science Quarterly*, 20(1), 9-13. <http://dx.doi.org/10.1177/0894318406296784>
- Lim, J. Y. (2009). *Perceptions and self efficiency esteem of the multi culture among th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ong, T. B. (2012). Overview of teaching strategie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9(3), 102-108.
- Mo, K. H. (2009). Effects of a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75-99.
- Nam, K. A. & Jeong, G. H. (2013). Analysis of prejudice toward foreigners by nurses and physicia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437-449.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437>
- Park, M. S. & Kweon, Y. R. (2013). Effects of a cultur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maternity nursing care: case-based small group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26-635.
- Park, S. H., Lee, J. H., & Kim, E. J. (2011).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3-145.
- Peek, E. H. & Park, C. S. (2013).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90-696.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 Song, M. K., Lea, E. K., & Shin, H. J. (2009).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 program for enhancing foreign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627-1643. <http://dx.doi.org/10.15703/kjc.10.3.200909.1627>
- Rozkwitalska, M. & Gdańska, P. (2010). Barriers of cross-cultural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Intercultural Management*, 2(2), 37 - 52.
- Yoo, I. Y. & Lee, J. A. (2014). Cultural disposition and multicultural environmental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1(6), 925-931.
- Yoon, S. W. & Kim, S. D.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36(1), 91-118.

ABSTRACT

##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s on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fficacy

**Chae, Myeong Je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Kim, Jin-il**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its effects on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fficacy. **Methods:** A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pre-post test. The experimental group (n=34) participated in a 13-week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while the control group (n=35) attended regular classes having no relation with multiculturalism for the same period as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fficacy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PASW 18.0 program. **Results:** Total scores for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fter the program. The subcategories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interaction enjoyment' and multicultural efficacy; 'general functions', 'considering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creased respectively, whereas others were not changed.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that a 13-week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for improving nursing students' level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fficacy.

**Key words :** Culture, Multi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efficacy, Students, Nursing